지역 메아리

## 부안해양경찰서, 양식장 절취 행위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부안·고창해역 양식장 절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해경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부안·고창 해역에서 고질적인 양식장 절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과 어민들의 생계의 터를 보호하며 수산관계법령 등 해양에서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해·육상 단속반을 편성, 주요 항·포구와 마을어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상 레저활동(스킨스쿠버)을 빙자한 불법어획물 포획행위자,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불법 어업 행위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 시 절도죄,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강력한 법집행 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습·관행적인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 지역어민 소득증대 및 야간 양식장 관리에 관한 피로도 경감, 선제 예방활동 및 단속으로 지역어민 양식장 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 소화기 화재진압 인명피해 막아

부안 소재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상가 이용객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 큰 인명피해를 방지했다.

지난 6일 오후 9시 34분경 진서면 곰소항길에 위치한 김모씨(65, 여)는 상가운영을 마치고 퇴근 후 점포 수족관 옆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옆집 식당 주인이 불을 발견한 후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식당이용객이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족관과 천장, 그리고 간판 일부가 소실.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화재조사팀이 전기배선 등을 포함하여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다.

출동에 나선 부안소방서 경준모 현장지휘팀장은 "상가 이용객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건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았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난대응에 강한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 앞장

## 정읍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활동·단속 강화

정읍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는 한편 연중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을 알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측면에 주차하여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많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015년 256건에서 2016년 283건, 2017년 5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이러한 상황 안내와 함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시는 이달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법률 설명과 함께 주차 가능 표지와 발급 기준 등도 상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위반 장소와 위반 일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비워두어야 하며 잠깐의 주정차나 임산부, 노약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응급 상황이 아닌한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전 청와대연설비서관 출신 작가 강원국
# 정읍시민 특강 '대통령의 글쓰기'

### 2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

전(前) 청와대연설비서관 출신인 작가 강원국 씨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갖는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강 작가는 이날 '대통령의 글쓰기'를 청와대에서 연설문을 쓰고 다듬으며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에 대해 전해줄 예정이다.

강 작가는 현재 활발한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글쓰기 방법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전해오고 있다. 또 '말하는대로', '어쩌다 어른' 등 다수의 TV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입담을 과시하면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8년간의 연설비서관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저서 '대통령의 글쓰기'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데 최고의 교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강 작가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전주 출신의 강 작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연설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0년 6월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이번 특강은 제68회 정읍 단풍아카데미(前 시민행복특별강좌) 일정으로 마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 오디농가 생산성·소득 향상 기여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친 환경개량자재 396롤 공급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부안군 오디농가에 고품질 오디 안전 생산을 위한 부직포 및 제초매트 등 친 환경개량자재 396롤을 공급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변산면작목반을 비롯한 12개 읍·면 오디작목반에 공급한 부직포 및 제초매트는 친 환경 오디 재배포장 운영에 필수적인 농자재로 깨끗하고 건강한 오디를 원하는 소비자와 병해충 없는 오디 생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만족도가 크다.

친 환경개량자재 공급 사업은 오디 재배 농가의 포장관리 일손을 크게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후 변화와 다양한 병충해로부터 뽕나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잡초 억제 효과가 있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강성선 친 환경기술과장은 "전국 최대 오디 생산지답게 오디표준 재배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필요한 농자재를 적기·적시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 오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며 "오디 품질 표준화를 위해 규격포장재 지원사업과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인 GAP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부안참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정읍, 장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정읍 장재지구 저지대 배수로 정비가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13일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6억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예산확보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비는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일대 저지대에 위치하여 농수로 465m 농경지의 배수로가 협소하고 여름철 토사로 수풀이 무성하는 등 약 60mm의 강우시에도 주변농경지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읍지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6년부터 정부에 장재배수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었다.

정동환 지사장은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던 장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장재리 일대의 상습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조건이 개선되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사 관내의 저지대 답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배수개선사업의 신규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고창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0일 여성회관에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지역 내 7개 기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처 확보와 사회진출영역 확대를 위해 기업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업체가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도록 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 업체는 △베리팜영농조합법인 △고산식품 △㈜내츄럴코어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신강수산영어조합법인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성산식품 등 여성인력채용과 여성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7개 업체다.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체결 업체는 앞으로 취업상담사의 전담기업 관리를 받아 구직자 우선 알선과 취업지원, 인턴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여성친화 및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 14개 기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고용센터의 '일자리지원 사업 설명회'와 지역 내 기업 간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군 관계자는 "직업 정보망을 구축해 역량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다문화가정 산후 조리비 지원

정읍시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정읍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10일샘골보건지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 한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정읍 내 산후 조리원(서울, 현대)에서 받은 산후 조리 비용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산후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이다.

신청 시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 조리비 영수증 1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를 갖춰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